

앙리 르페브르의 ‘공간생산이론’에 대한 고찰

노대명

성공회대 강사, 정치학 박사

1. 들어가는 글

자본주의는 ‘자신의’ 공간을 생산하고, 그것을 확장하며, 무한한 팽창이 주는 혼란을 피해 새로운 경계(국경)를 만들어 재구역화하는 부단한 운동을 한다. 이런 주장은 브로델(F. Braudel)이나 들뢰즈(Gilles Deleuze)의 사상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자본주의는 하나의 사회·경제체제로서 ‘자신만의 공간’을 생산 혹은 구역화(Territorialisation)하고, 지배적 사회관계의 재생산을 위해 공간을 확장 혹은 탈구역화(Déterritorialisation)시키며, 축적체제의 위기에 직면하여 공간을 다시 폐쇄 혹은 재구역화(Réterritorialisation)한다.

들뢰즈에 따르면 “세계자본주의의 탈구역화는 근대민족국가로 재구역화되고, 이 민족국가는 민주주의에서 그 귀결점을 발견한다”(G. Deleuze et F. Guattari, 1991: 94). 이것은 자본주의의 공간적 구조가 근대자본주의국가를 단위로 형성되었으며, 민주주의가 바로 이 정치적 경계(국경) 안에 자리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실제 근대자본주의는 이윤을 따라 자신의 공간을 무한정 확장하다가 위기에 직면하여 공간을 재구성하며 여기에 안

주하는 과정을 밟아왔다. 이것은 19세기 세계자본주의가 국가들의 체계로 재구역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국가를 단위로 하는 공간들이 자본의 생산과 재생산을 둘러싼 갈등의 중심에 놓여 있고, 이 공간을 장악하기 위한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전선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이후, 자본주의는 기존의 공간을 넘어서는 새로운 팽창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소위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공세는 경제적 측면에서 국경을 넘어서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주장하고, 정치적으로 새로운 제국의 출현을 암시하며, 이데올로기적으로 세계시민사회의 도래를 천명한다. 그러나 이것은 현대자본주의가 사회주의와의 대결을 위해 근대국가체제를 근거지로 삼던 단계에서, 새로운 정복을 위해 근대국가체제를 재편 혹은 재구성하여 공간을 확장하려 함을 의미한다.

이를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공간이론의 일차적 과제는 자본중심의 공간팽창이 가져다주는 피해를 지적하며, 이데올로기적으로 이를 정당화하는 다양한 형태의 탈구역화 혹은 세계화 담론을 비판하며, '대안적 공간생산'을 위한 합의와 토대를 구축하는 일이다. 물론 이것이 탈구역화 일반에 대한 반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엄밀한 의미에서 대안적 공간생산 또한 탈구역화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탈구역화 담론의 토대를 이루는 정치적·경제적·이데올로기적 합의가 매우 상이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안적 공간생산을 둘러싼 논의는 정치적·경제적일 뿐 아니라 철학의 대상이 된다. 정치가 전제하는 갈등의 합리성이 철학의 심판대에서 새로운 방향성을 부여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란 갈등(Mésentente)의 합리성을 자신의 합리성으로 삼는 활동이다. 따라서 철학은 정치적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치란 철학의 간섭을 필요로 하지만 그 자체로 중요한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철학은 정치적이

된다. 왜냐하면 정치의 합리성을 조절하는 것이 철학의 특성을 정의하는 하나의 조건이기 때문이다”(Jacques Rancière, 1995: 15).

세계화에 대한 최근의 논의들은 한국사회가 지금 어떠한 공간운동 속에 포섭되어 있고, 그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규명하는 데 일차적 과제가 있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재구역화와 탈구역화의 이중적 운동을 하는 자본주의의 세계적 재편성과정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뒤로 미루고,¹⁾ 이 자본주의의 이중적 운동을 전제로 정치적 국경 내부에 존재하는 지배공간의 구성과 기능방식, 그리고 이에 대항할 저항공간의 가능성을 기술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프랑스의 좌파철학자 앙리 르페브르의 저작이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먼저 밝혀둘 것은 르페브르는 지배공간이나 저항공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는 자본주의사회 내에서 공간이 지배관계의 재생산에 어떻게 간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데 주력하며, 지배공간과 저항공간이라는 표현 대신에 ‘모순적 공간(Espace Contradictoire)’과 ‘차별적 공간(Espaces Différentiels)’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H. Lefebvre, 1974: 337-405, 407-460). 이 지배공간과 저항공간에 대한 논의는 앙리 르페브르의 1960~70년대 저작 속에 잘 나타나 있으며, 이 시기의 저작들은 일단의 유토피아적 정신과 과학정신에 대한 믿음을 실천의 문제와 적극적으로 결합시킨다는 점에서 그의 공간이론이 다른 공간이론에 비해 역동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의 ‘공간생산’이론은 기존의 공간개념들이 물리적 공간(Vidal de la Blache)이나 개념적 추상공간(Alain Lipietz, 1977)을 염두에 둔 채 그 절대적 규정

1) 이 문제에 대해서는 David Harvey, 1982, *The Limits to Capital*(최병두 역, 『자본의 한계』, 한울, 1995)과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London: Blackwell, 1990)를, 국내에서의 논의로는 김환석, “환경위기: 자본주의의 위기인가, 포드주의의 위기인가”와 최병두, “자본주의의 위기이며 동시에 포드주의 위기인 환경위기”, 《경제와사회》, 1992년 겨울호를 참조할 수 있다.

성을 강조하거나, 상징적 상호작용이나 상상력에 천착하여 공간을 이해와 직관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것과는 달리, 기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공간생산과정에 스며드는 다양한 계기들을 포착하여 그 내적 구조와 '모순'을 설명하고 있다.

2. 공간이론 재구성을 위한 접근방법

공간에 대한 비판적 사유가 1960년대 후반이후 좌파공간사회학자들에 의해 활성화되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이 좌파공간사회학자들이 공간과 관련한 '하나'의 이론을 공유했던 것은 아니다. 그 뿌리로 거슬러 올라가면, 맑스가 공간을 논의한 저작들이 도시/농촌관계에 대한 분석에 제한되어 있으며, 그마저도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기 때문이다(Lefebvre, 1972: 7). 하지만 다양한 공간이론이 분출되게 된 이유를 보다 가까운 곳에서 찾는다면 1950~60년대의 철학적 지형을 들 수 있다. 당시 맑스주의자들간의 다양한 입장(가령 반인간주의적 맑스주의 대 인간주의적 맑스주의, 과학적 맑스주의 대 비판적 맑스주의, 루카치주의 대 알튀세주의)은 맑스의 사상은 물론이고, 공간의 생산·재생산양식을 둘러싸고 큰 이견을 보여왔다. 물론 맑스주의를 둘러싼 해석의 정치적 힘겨투기가 공간에 대한 일관된 이론의 발전에 중대한 걸림돌이었음도 지적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다양한 사상적 스펙트럼 속에서 르페브르의 공간이론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 먼저 르페브르의 공간이론을 다루면서, 그 속에서 완벽한 이론적 체계를 발견하려는 것은 부질없음을 전제하고, 설명에 들어가기로 하자. 그의 이론은 자신이 처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당대의 많은 이론가들과의 논쟁을 통하여 공간을 보다 종합적으로 포착하려는 시도로 발전해왔다. 르페브르는 방법론적으로 '이해 대 설명', '전일주의(holisme) 대 방법론적 개인주의', '구조 대 행위' 등의 대립구조가 맑스주

의 속에서 통합 혹은 공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하였고, 이를 공간 생산이론을 통해 모색하였다. 그의 시도는 물론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였으며, 이따금씩은 매우 왜곡된 해석에 시달리기마저 하였다. 특히 그의 사상은 스탈린주의자들의 부당한 왜곡과 알튀세주의자들에 의한 강단으로부터의 배척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정치권력과 지식권력이 만들어내는 굴절된 담론생산구조는 스탈린주의적, 주다노프적 악령에 시달리던 20세기의 비판적 지식인들의 힘겨운 삶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제 스탈린주의적 망령과의 싸움으로 점철된 르페브르의 삶(Remi Hess, 1987)을 통해 공간이론을 지배해왔던 당시의 담론생산구조를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해석적 권위를 독점하거나 절대화하는 시도를 지적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1940~50년대 프랑스는 공산당계열의 좌파정치세력과 그를 둘러싼 지식인들이 맑스주의에 대한 해석을 독점적으로 지배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독점의 구조는 1960년대 대학이라는 제도와 관련해서 새로운 양상을 나타낸다. 이른바 대학이라는 제도적 공간 속에서 지배적 위치를 점한 지식인들이 해석의 권위를 장악하고, 그것을 주류로 만들어 가며 다른 일체의 해석에 ‘비과학적’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일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독점구조가 만들어낸 것은 이론과 현실의 대분열이었다(Jeannine Verdès-Leroux, 1983; 1987).

둘째로, 맑스주의를 하나의 완벽한 체계로 이해하거나, 그러한 체계를 찾기 위해 자신의 해석을 강제하는 시도가 갖는 위험성을 지적할 수 있다. 아마도 맑스주의를 완벽한 이론적 체계가 아니라 하나의 해방적 프로젝트로 간주함으로써 그것이 가진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과학적 함의와 비판적 함의를 결합하는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1995년 프랑스 낭테르(Nanterre)지역에서 개최되었던 국제맑스총회(Congrès Marx International)의 취지는 그 결과적 분열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것이었다. 그 취지는 수십 년간 갈등을 거듭해왔던 ‘과학적 맑스주의’와 ‘비판적 맑스주의’ 간의 재결합에 대한 호소였다(Actuel Marx,

1996). 이러한 갈등의 뿌리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1960년대 알튀세가 시도했던 『자본론』에 대한 재해석이 그곳에 놓여 있다. 그의 자본론에 대한 재독서는 맑스가 ‘말하지 않은 것(le non-dit 혹은 l'impensé)’을 찾아낸다는 긍정적 의미를 갖고 있음에 분명하다. 그러나 이 징후적 독서(lecture Symptomale)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징후적 독서를 통해 보면 “맑스는 우리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H. Lefebvre, 1972b: 216-219)는 것이다. 그렇다고 맑스의 사상에 대한 단순해석과 단순적용의 악순환고리를 되풀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맑스의 사상을 규정성이나 의지의 한 고리에 걸어 풀어내는 체계화 작업이 가진 한계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간이론에 대한 단서를 맑스에게서 발견해내는 작업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르페브르의 공간생산이론을 논의하기에 앞서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르페브르의 이론은 프랑스와 영국에서 걸으로 드러난 것보다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공간을 둘러싼 상상력을 자극하였다는 사실이다. 프랑스에서는 Guy Burgel, Jean-Pierre Garnier 등과 같은 도시계획자들에게, 영미계열에서는 David Harvey, Frederic Jameson, Robert Shields, Edward Soja, Derec Gregory 등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 르페브르의 이론이 그의 저작이 가진 난해함과 알튀세 철학의 과도한 유행에 묻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해도, 그의 저작이 가진 이론적 풍부함은 공간문제를 이해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Jean-Pierre Garnier, 1994: 31-40).

3. (사회적) 공간의 구조

르페브르는 분리된 공간들의 상호연계성에 초점을 두고 공간이론을 구성하지 않았음에 분명하다. 따라서 그의 공간이론에는 다양한 공간들의 체계적 배열(인과론적이든 수평적이든)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의 공간개념은 대단히 문학적이며, 이따금은 시적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인과관계에 따라 배열하기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구태여 구분한다면 그는 공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회적 공간은 “주관적으로는 집단과 개인이 존재하고 살아가는 환경을 의미하고, 객관적으로는 망과 즐거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외피로 구성되어 있다”(H. Lefebvre, 1961: 233).

하지만 그가 공간에 대한 개념을 혼돈 속에 방치했던 것은 아니다. 그는 물리적 공간(Espace physique)/사회적 공간(Espace social)/정신적 공간(Espace mental)이라는 세 개념을 통해 자신의 공간개념의 특성을 보여주고자 한다(H. Lefebvre, 1973a: 169; 1974: 12-13, 42-43, 46-57). 이 경우 정신적 공간 혹은 추상공간(Espace abstrait)은 현실적으로 사회적 공간과 분리된 공간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개념들은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와 사회체제를 지배하는 합리성의 논리나 추상적 도시계획이론이나 교환가치 공간 등을 의미하고, ‘구체적 공간’과는 대립되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그가 이처럼 공간을 세밀하게 분류하지 않은 배경에는 현실에서 분리된 채 외적인 존재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양한 담론들에 대한 비판이자, 실증주의자들이 전제하는 자기완결적 공간이론에 대한 비판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 공간이론의 세 가지 층위

르페브르는 공간을 세 가지 층위 혹은 계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형태의 공간생산방식을 설명한다. 먼저 그 세 층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적 실천으로 이는 인간의 활동을 통해 형성된 이른바 지각공간(Espace perçu)을 지칭한다. 공간적 실천을 통해서 인간은 공간을 물리적으로 생산하고, 이 과정에서 개인들은 집단화된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일상적인 반복적 공간활동(산책을 하거나, 일을 위해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사회적 삶을 구조화한다. 그러나 이 공간적 실천이 필연적으로 연대를 조장하는 것은 아니며, 역으로 원자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다음의 ‘공간의 표상들’과 ‘표상공간’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 중 하나이다.

둘째, 공간적 표상은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체험하는 복잡한 상징과 이미지들과 함께 형성하는 체험공간(Espace vécu)을 지칭한다. 이것은 공간을 인지하고 개념화하는 활동과는 달리 공간과 그 대상을 상징적으로 체험한다는 점에서 유동적이며 상황적이다. 그리고 이 체험공간이 역사적으로 권력과 폭력의 상징 등에 의해 수동적으로 체험되어 왔던 측면만이 아니라 유동성에 근거하여 행위가 도출되는 자발적 측면도 갖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르페브르는 공간의 표상들이 일반적으로 '차가운' 것에 반해, 표상공간은 보다 격동적(Agité)이라고 표현한다(H. Lefebvre, 1990: 50).

셋째, 표상공간은 공간에 대한 이론적 형태의 모든 담론들을 지칭하며 인지공간(Espace conçu)을 이룬다. 즉 지식인들이 공간을 해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다양한 기호와 전문용어 등이 이 범주에 들며, 이 표상들은 공간적 실천을 통해 공간생산에 간여하면서 두 가지 상이한 역할을 한다. 먼저 그것은 기존사회의 생산관계와 강제적 질서, 그리고 이를 합리화하는 코드와 관련되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정치권력이 부과하는 질서를 내면화하고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하는 정치공간을 들 수 있다. 반면에 이 공간의 표상들이 전적으로 그러한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파편적으로나마 공간에 대한 객관화된 지식의 형태를 띠기 때문이다.

□ 공간이론과 메타철학

공간을 구성하는 이 개념들은 모두 인간의 '육체(Corps)'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르페브르에 따르면 육체에게 감각공간과 추상공간은 분리되지 않는다. 흔히 자발성과 이성(언어, 담론) 등을 대립시키는데, 실제로 육체는 언어와 자발성을 몸짓을 통해 결합시킨다. 바꾸어 말하면 지각활동은 이론적 활동과 상징적 활동을 물질화시키며, 그것을 상호 연계시킨다. 따라서 공간적 실천, 공간의 표상, 표상공간은 육체와의 관계에 따라

설정된다(H. Lefebvre, 1974: 245-249). 이러한 맥락에서 “언어가 공간에 선행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현상학이 ‘공간성(Spatialité)’의 우위를 말하고, 실증주의가 언어의 선재성을 말한다면 르페브르는 행위(Action)의 선재성을 말한다. 그에 따르면 공간적(혹은 일상적) 실천은 직관(Intuitus)에서 출발하여, 습관(Habitus)이 되고, 지능(Intellectus)에 의해 지배된다(H. Lefebvre, 1974: 278-279, 283-284).

그러나 르페브르가 ‘육체’의 개념에 초점을 두는 것이 육체의 이론적 토대를 정립하려는 단순한 지적 욕망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서구에서 육체의 역사란 바로 봉기의 역사”라고 말했던 옥타비오 파즈(O. Paz)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오늘날 육체는 저항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지에 의해 파괴된 육체의 저항은 정치적 저항도, 사상적 저항도, 자유의 저항도 아니다. 그것은 이론적 토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론을 통해 그 토대를 되찾으려는 세계적이고 기본적인 봉기이다. 이것이 왜 그가 언어와 그 추상화작업에 의해 추방된 체험(Vécu)을 공간이론 속으로 호출하는가 하는 이유이다(H. Lefebvre, 1974: 232-233).

만일 그의 공간이론의 육체에 대한 천착이 아주 전복적이고 실천적인 함의를 갖고 있다면, 위의 세 개념 중 어느 하나에 절대적 무게를 실어서 그것이 공간생산을 지도하는 이념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비록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인지공간의 독주(합리성의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목도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간의 문제는 인지공간이 다른 두 가지 공간과 갖는 상호관련성을 전제로 해서만 총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공간적 실천(혹은 육체)이 모든 지배공간과 저항공간의 기원이라고 간주하고 전적으로 이러한 전제에 의거해 공간정치를 구상하거나, 인지공간이 갖는 형식적 합리성을 공간정치의 근간으로 삼거나, 체험공간이 인간이 생존하는 장(place)이자 자발성의 거처라고 간주하여 이를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것은 르페브르의 공간이론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르페브르에 따르면 실천(Praxis)/이성(Logos)/모방(Mimesis)의 세 가지 계기 중에서 어느 하나를 공간정치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없다. 바로 이것이 르페브르의 공간이론

을 이끄는 메타철학의 근본이념이다(H. Lefebvre, 1965a).

보다 거시적으로 우리는 르페브르의 공간이론에 대한 메리필드(A. Merrifield)의 해석에 공감을 표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르페브르의 공간이론은 “공간의 변증법, 즉 전지구적인 전체와 국지적인 일상 간의 분리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론적으로 정리된 공간적 실천의 특정한 모습을 전제로 한다”(Andrew Merrifield, 1993: 61). 즉 사회적 공간을 이해하고 공간정치를 이론화하려면 국지적인 것(가령 노동계급의 연대가능한 장소와 그 일상)과 전체적인 것(자본주의의 세계적 확장)의 상관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바로 이것이 메리필드가 말하는 ‘장소와 공간의 변증법’이다.

4. ‘공간생산’이론의 함의

르페브르가 공간에 대한 일반이론이나 체계에서 출발해 공간정치를 연역해냈거나, 그의 모든 저작이 하나의 일반이론을 공유했던 것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그의 대다수 저작이 일련의 개념을 공유한다 해도 후기저작에서 나타난 일반이론을 초기저작에 무비판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식의 체계화는 그의 이론적 발전과정에 존재했던 미묘한, 그러나 중요한 변화를 포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²⁾

2) 조금 다른 예로 최근 일상생활사회학을 논의하는 많은 저작들은 르페브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논리적 오류를 보이고 있다. 르페브르가 3권의 『일상생활비판』을 35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집필하였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가령 제1권은 1947년 집필되었고, 다시 1958년 긴 서문을 덧붙여져 재출판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 동안에 르페브르의 사상은 해방철학으로서의 변증법적 유물론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메타철학적 파라다임으로 변환된다. 그러므로 1947년의 저작은 1958년의 서문과 다른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또한 1968년의 『현대세계에서의 일상생활』에서 절정에 달했던 낭만주의적 경향은 그의 공간생산이론을 통해서 비판적으로 지양되었음에 주목해야 한다. 박재환 교수의 논문(『일상생활에 대한 사회학적

□ 공간이론의 철학적·사회학적 형성배경

르페브르는 자신의 공간이론에 나름대로의 명칭을 부여하였다. 그것은 공간학(Spaciologie)이라는 용어로 그의 저서 『공간생산』에서 단 한번 사용되었고, 게다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많은 유보조건을 붙이고 있다(H. Lefebvre, 1974: 455). 공간에 관한 그의 저작 중 가장 대표적인 『공간생산』은 후기저작에 속하며, 이 저작의 핵심주제인 ‘사회적 공간’의 대상영역은 도시공간에 국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가 공간학을 통해 도입하는 다양한 방법들은 도시공간을 넘어서 사회 전체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³⁾

그 이유는 르페브르가 공간생산이론에 도달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의 사상은 변증법적 유물론의 갱신에서 출발하여, ‘일상생활에 대한 철학적 분석’을 ‘일상생활사회학’으로 발전시키고, ‘일상생활의 식민화 테제’⁴⁾를 도시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결합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그가 저작 ‘공간생산’을 집필하였던 것은 그의

조명], 박재환/일상성. 일상생활연구회편, 『일상생활의 사회학』, 한울, 1994, 특히 30-34쪽 참조)은 르페브르에 대한 탁월한 종합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1권의 이데올로기비판적 편향성을 통해 그의 일상생활사회학을 결론짓는 것처럼 여겨진다. 르페브르의 일상생활비판이 철학적 비판으로서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천착에서 그 사회적 삶과 권력 그리고 경제적 메커니즘에 대한 사유로 발전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 3) 르페브르의 공간학적 방법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좋고, 『앙리 르페브르의 정치철학: 메타철학의 정치』, 파리 2대학 정치학 박사학위논문, 1997(La Philosophie Politique d'Henri Lefebvre: la politique de la Métaphilosophie), 제2부 3장 참고.
- 4) 일상생활의 식민화(La Colonisation de la vie quotidienne)에 대한 이론은 생활세계의 식민화라는 하버마스(J. Habermas)의 이론과 많은 유사점을 갖는다. 이 개념은 르페브르의 저작 『일상생활비판』 제2권(1961)에서 출현하는데, 본래 출처는 상황주의자(Situationniste)였던 드보(Guy Debord)의 한 논문이었다. 이 논문은 1960년대 르페브르가 이끌던 ‘일상생활연구소’에서 발표되었다. Guy Debord, “Perspectives de Modifications conscientes dans la vie quotidienne,” *Internationale Situationniste*, n.6, aout 1961, p. 22; Henri Lefebvre, *Critique de la vie quotidienne*, Paris: L'Arche, 1961, p. 16-17.

저작활동의 황혼기였던 1974년이었고, 이 시기동안 그의 공간사상은 정치경제학/일상생활비판/정치를 결합시키는 '공간정치'의 사상으로 발전한다. 실제로 『도시에서의 권리』 제1권(1968)과 2권(1973)을 출판하는 사이, 그의 사상 속에 '공간정치'라는 개념이 자리잡게 된다(H. Lefebvre, 1973a: 184-200). 따라서 그의 공간생산이론은 자본주의사회의 지배/착취관계의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포괄적으로 분석·비판하려는 의도하에 정립된 거시적 이론이었다.

공간생산이론은 역사적으로 많은 사상가들(철학자, 건축가, 시인 등)에 의해 개척되었다면, 르페브르는 이 선구자들 중 초현실주의, 바우하우스(Bauhaus), 소련의 아방가르드, 상황주의자들에게서 이론적 영감을 발견하였다. 이 영감은 삶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새로운 공간을 창조해야 한다는 이념이었다. 그리고 이 이념은 공간을 총체적으로 인식하고, 모든 대상을 공간 속에서 총체적으로 인식하기 위한 이론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그가 공간생산이론의 선구자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던 것은 아니다. 그에 따르면 소련의 아방가르드는 혁명이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그것이 새로운 사회적 생산관계를 생산한다고 올바르게 이해했음에도,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새로운 공간을 구성하는 데 집착한 나머지 공적 삶과 사적 삶을 분리시켜 좌절에 이르게 된다. 르페브르는 또한 공간생산의 권위주의적 이론을 비판한다. 한 예로 르 꼬르비지에(Le Corbusier)는 공간생산이론을 출발점으로 하면서도 아방가르드에 무관심했고, 권위주의를 상징하는 직선과 수직성을 강조하는 건축양식을 지향하였다. 따라서 그가 수용한 상징주의는 공간적 합리성의 깃발 아래 정립된 국가적·도덕적 질서였다(H. Lefebvre, 1973a: 250-253). 이처럼 르페브르는 공간생산이론의 선구자들을 비판적으로 계승함으로써 자신의 공간이론을 풍요한 이론적 보고로 만들고자 시도하였다.

□ 공간생산이론의 특징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르페브르의 공간생산이론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로 하자.

첫째로, 공간생산이론은 “각 사회, 각 생산양식은 자신의 공간을 생산한다”(H. Lefebvre, 1974: 40)는 전제를 갖는다. 이것은 새로운 생산양식이 생산관계의 변혁을 통해서만 출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의미한다. 즉, 각각의 생산양식은 생산수단의 집단적 소유와 관리에 의해서 정의될 뿐 아니라, 공간에 대한 집단적 생산과 관리에 의해 정의된다. 따라서 새로운 생산양식은 기존의 사회적 관계와 공간 모두의 전복 없이는 출현할 수 없다. 그리고 공간은 지배관계의 재생산에 이용되고, 그 사회적 관계들을 함축하고 있다. 이는 각각의 생산물이 하나의 사물로서 사회적 관계를 내포하고 은폐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H. Lefebvre, 1973b: 232).

둘째, “(사회적) 공간은 (사회적) 생산물(Produit)이다”(H. Lefebvre, 1974: 35). 이 표현은 사회적 공간이 하나의 생산된 사물(la Chose)에 불과하다는 공간에 대한 주관적 관념론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20세기 프랑스 공간이론을 지배해왔던 지리학적 전통의 ‘대상적 공간’ 이론에 대한 비판을 의미한다. 르페브르에 따르면 공간생산은 자연법칙(자연적 규정성의 논리)이나 역사법칙(사회적 규정성의 논리)에 의거해서만 설명될 수 없다. 왜냐하면 중개자로서의 ‘사회적 집단’ 그리고 ‘지식/이데올로기/표상 속의 이성’이 공간생산에 간여하기 때문이다(H. Lefebvre, 1974: 93-94). 따라서 사회적 공간은 ‘인간의 행위’와 ‘구조의 규정성’ 간의 변증법적 관계, 혹은 ‘집단적 사상이나 의지’와 ‘생산력’ 간의 변증법적 관계를 통해서 ‘생산된’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간생산’ 개념은 행위와 구조의 두 고리를 묶으려는 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셋째로, 사회적 공간은 ‘분리된’ 공간들의 단순집합이 아니다. 르페브르에 따르면 맑스는 사물생산에 대한 이론을 생산관계의 재생산이론으로 발전시켰다. 그런데 오늘날 이론가들은 공간을 건축공간, 경제공간처럼 공간의 사물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파편화시키고 있다. 달리 표현하면 분업 논리에 따라 혹은 수학적 논리(수학공간을 분류하는 동질성-이질성의 대립논리)에 따라 공간을 무제한적으로 분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사회적 공간은 '다양하고', '중층적이고', '상호침투적'이다(H. Lefebvre, 1974: 36, 104). 예를 들면, 지역공간-국가공간-세계공간이라고 분류했을 때, 이 공간들은 작은 공간이 모여 커다란 공간을 구성하는 형식논리적 과정을 따르지 않는다. 반대로 세계공간이 국가공간을 조장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공간에 대한 르페브르의 변증법적 사고는 현대자본주의의 세계화와 국지화간의 불균등발전⁵⁾에 대한 보다 신축성 있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넷째로, 사회적 공간에 대한 르페브르의 이론은 추상공간에 대한 비판을 통해 보다 구체화된다. 앞서 말했듯이 공간생산과 사회적 공간에 대한 그의 이론은 1960~70년대 확산되었던 '기호체계로서의 공간' 이론에 대한 비판을 염두에 둔 것이다. 르페브르에 따르면 인식론적 공간이론은 이미 생산된 공간을 전제로 구성되기 때문에 공간생산을 자신의 사유영역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 왜냐하면 수학적 공간에서 출발한 인식론적 공간이론은 집합이론에 의거하여 논리적 일관성을 실제적 일관성과 동일시하거나 대입시키고, 나아가 이 논리적 체계에 의거하여 공간의 자율성과 상호관련성을 설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식론적 공간이론의 가장 근본적인 한계는 '가시적이고 독해 가능한 것'을 넘어서 그 배후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배후란 추상적 공간이론이 포착하지 못하는 것들을 의미하는데, 르페브르에 따르면 '육체와 권력'이야말로 추상적 공간이론의 방법론적 잔재인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추상적 공간이론은, 한편으로는 체험하고 지각하는 것을 포섭할 수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략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권력을 포착할 수 없다(H. Lefebvre, 1974: 189).

혹자들은 르페브르의 공간(생산)이론은 인간주의적 혹은 이데올로기적이라고 비난해왔다.⁵⁾ 과연 그의 공간이론을 인간주의적 공간이론이나 공

5) 많은 저자들 중 우리는 마누엘 카스텔(Manuel Castells)의 비판을 예로 들 수 있다. 카스텔은 르페브르의 공간생산이론을 이데올로기적이라고 비판하는 가장 대표적인 저자이다. 그러나 그가 『도시문제』를 출간했던 1972년은 르페브르의 『공간생산』이 출간되지 않은 시점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1981의 재판에서는 자신의 다소 변화된 입장을 암

간의 이데올로기라고 해석할 수 있는가. 만일 인간주의적 방법이 인간의 행위를 조건짓는 구조적 규정성을 무시하고, 행위에 대한 해석과 이해의 문제에 천착함으로써 실천을 배제하고, 사회적 규범의 초역사성이나 안정성에 천착하여 정치권력의 문제를 배제하는 것이 그 특징이라면, 르페브르의 공간이론은 결코 그러한 인간주의적 공간이론이 아니다. 설령 그가 ‘강경한’ 반구조주의자였다 해도, 이것이 그의 공간이론을 인간주의적 혹은 이데올로기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논거가 될 수는 없다.

르페브르는 첫째, 맑스의 사상으로부터 구조/기능/형식의 삼원소를 도출함으로써 실증주의와 구조주의가 고착화시킨 구조의 초역사성을 구조의 생성/고착/붕괴라는 운동 속에 위치지운다. 아울러 역으로 구조의 규정성을 배제한 정치적 주의주의를 비판하기 위해 경제적 메커니즘의 무게를 강조하기도 한다(H. Lefebvre, 1971: 347-369). 둘째, 그는 인간행위를 해석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철학적 경향과 인간의 합리적 행위를 설명의 기본단위로 삼는 행태주의적 경향에 비판적이다. 앞서 언급했던 ‘공간적 실천’ 개념은 이를 입증하기에 적당한 예라고 말할 수 있다. 셋째, 그는 사회적 규범이나 제도에 토대를 둔 정치적 이상주의나 법치주의를 변혁사상의 중심으로 삼지 않는다. 넷째, 그는 푸코 이상으로 권력과 지식의 공모성에 근거한 자본주의사회의 지배전략을 규명하는 데 노력했던 철학자였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공간공학의 도구성에 대한 비판 속에 잘 드러나 있다(H. Lefebvre, 1967: 183-196).

메타철학에 근거한 르페브르의 사상은 사회현상을 구조라는 개념을 통해 추상화하는 작업이 불필요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그 구조가 남겨놓은 ‘잔재’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잔재(Résidus)’(H. Lefebvre, 1965a: 118)라는 개념은 메타철학의 방법론적 토대가 되는 두 개념 중 하나로,⁶⁾ 파레토(Vilfredo Pareto)에게서 발견되는 동명의 개념과

시한다. Manuel Castells, *La Question Urbaine*, Paris: Maspero, 1981, 1975년에 쓰여진 후기(pp. 483-523)를 참조.

6) 메타철학적 방법론의 핵심개념은 ‘긴장(Tension)’과 ‘잔재(Résidus)’이다. 이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 르페브르와 파레토는 합리적/과학적 학설과 실천적 학설을 통합할 필요성에 주목하며, “인간이 생산하는 모든 지적 구성물들의 이데올로기적 합리화”(Alban Boubier, 1994: 91)를 비판하기 위해 이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그의 공간이론은 구조에 대한 설명이기보다 공간의 모순에 대한 분석이고, 닫혀진 자기완결적 개념체계인 ‘공간과학(Science de l'Espace)’이 아니라 잔재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열린’ 이론이다(H. Lefebvre, 1973b: 22-24). 바꾸어 말하면 그의 공간이론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도식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는 그 개방성과 실천적 관심이 깊게 배어 있다. 어쩌면 바로 이 점이 많은 도시계획가와 연구가들이 뒤늦게 르페브르의 공간이론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일 것이다.

5. 지배공간의 내적 구조

앞서 기술했듯이 “각 사회와 그 생산양식은 자신의 공간을 생산한다.” 뒤집어 말하면 공간은 재생산의 사회적 관계(가족관계상의 생물학적-생리학적인 관계[성이나 연령 등]와 생산관계를 포함하는)를 함축한다. 그리고 공간은 생산력에서부터 제도와 이데올로기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모든 심급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공간은 생산과정에 생산력과 생산물로서 간여한다. 둘째 공간은 정치적으로 권력의 통제장치가 된다. 셋째로 공간은 시각화의 논리에 따라서 이데올로기화된다(H. Lefebvre, 1974: 402-403; 1972: 124-162). 르페브르의 표현을

중 전자는 구조와 행위라는 전통적인 도식이 정치적 전략 혹은 거대한 정치적 프로젝트 속에서 결합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런데 그러한 결합은 하나의 통일이 아닌 끝없는 긴장상태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후자는 이론적 추상화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인간현상의 특정측면의 배제를 비판하기 위해 차용된 개념이다. 예를 들면 구조주의 언어학의 잔재는 파롤(Parole)이다.

빌면 “공간은 경제적으로는 자본에 의해, 사회적으로는 부르조아계급에 의해, 정치적으로는 국가에 의해 지배된다”(H. Lefebvre, 1974: 62).

이러한 이유로 르페브르는 공간(생산)에 대한 다음 두 명제에 반대한다. 첫째 루카치의 ‘도구적 공간’ 이론은 공간을 생산수단의 재생산을 위한 도구로 파악할 뿐 그것이 사회적 관계의 재생산에 간여하는 복합적인 측면을 이해하지 못한다. 르페브르에 따르면, 루카치가 일차적으로 파악하는 생산공간의 중심성은 재생산과정 속에 포섭된다. 둘째로, 알튀세의 공간이론은 ‘인지 가능한 정신공간’에 관한 이론으로 공간의 중립성과 순수성을 가정한다. 반면 르페브르에 따르면 공간이란 정치와 이데올로기에 의해 왜곡된 과학적 대상이 아니라 항상 정치적이다(H. Lefebvre, 1973a: 186).

르페브르는 공간이 경제적 심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주목한다. 그는 공간(특히 도시공간)이 어떻게 1970년대 유럽에서 자본축적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이용되었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자본주의는 생산관계를 수정하고, 전공간에 확대됨으로써만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과거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재생산과정에서 공간(토지, 부동산)은 이차적 중요성을 갖고 있었으나 오늘날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공간에 대한 투자는 높은 이윤을 보장하고, 자본순환의 장기성 문제 또한 ‘소유자-판매자-공권력-지역공동체-은행-용자회사-건축가’ 등을 연계시키는 복잡한 네트워크를 통해 보장된다(H. Lefebvre, 1973a: 231-234).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서의 공간문제는 이처럼 경제활성화라는 순기능의 측면만이 아니라 자본의 흐름을 교란하는 부정적 측면도 갖는다. 이 양면성으로 인해 공간은 때로는 통제의 대상이 되고 때로는 조장의 대상이 된다.

1970년대 유럽의 공간개발을 통한 경제활성화는 1980년대 한국에서 자본이 수출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부동산투기에 몰두했던 것과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현상은 자본의 국외적 혹은 세계적 팽창이 한계에 도달함으로써 내부를 식민화하려는 경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내부식민화 과정은 자본주의의 팽창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탈구역화와 구역화의 운동 속에 내재된 현상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부식민화 과정에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다. 데이비드 하비의 말을 빌면 자본주의는 발전의 시간적 지평과 자본순환을 가속화시키는 경향이 있고, 이 가속화는 장기적 투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위기를 벗어나는 전략은 장기전략에 따라 과잉축적된 자본을 흡수하고, 자본순환주기를 단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자본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다른 주기를 통해) 기능하는 모순을 드러낸다. 이 과정에서 자본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국가이다(David Harvey, 1996: 67-84).

여기서 공간을 둘러싼 자본주의국가의 전략에 대한 르페브르의 논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그의 국가이론을 현대국가의 위상과 관련시켜 논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국가의 약체화가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국가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그의 공간정치이론이 설득력을 갖기 어려운 것이다(H. Lefebvre, 1977). 그러나 그의 국가이론은 국가권력의 전능함에 대한 다소 과장된 분석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본주의국가가 수행하는 공간지배전략의 핵심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자본주의국가는 지식과 기술을 통해 사회를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조직한다. 말하자면 다양성을 반복적이고 순환적인 운동으로 환원시켜 역사를 제거한다는 것이다. 이 반복적 운동을 지칭하는 균형(Equilibre), 피드 백(Feed-back), 조절(Régulation) 등의 개념은 공간의 고착화이자 시간에 대한 공간의 승리이다. 그리고 이 고착화는 다양한 사회세력들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저항을 근본적으로 봉쇄한다(H. Lefebvre, 1974: 31-32). 부연 설명을 하면, 국가는 도시계획이나 국토정비 등을 통해 공간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공간의 세 가지 층위를 적절히 이용한다. 이데올로기적 측면(테크노크라트적 표상을 통한 사회적인 것의 배제), 실천적 측면(행동수단으로서의 도구성), 전술-전략적 측면(정치적 목적을 위한 공간적 자원의 이용) 등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국가는 공간전략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무엇보다 먼저 국가는 도시의 '중심성'을 파괴한다. 도시가 노동계급에게 공간적 인

접성과 의사소통의 용이성을 보장함으로써 연대와 중심구성을 가능하게 한다면, 국가는 공간의 재정비를 통해 이 중심성을 파괴하는 데 부심한다. 그 예는 이미 19세기 후반 오스만(Hausmann) 경의 파리 도시계획 속에 잘 나타나 있다. 이른바 도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그는 파리에 거주하는 노동자들을 교외로 몰아냈고, 오늘의 파리를 건설하였다. 이는 19세기 프랑스를 뒤흔들었던 혁명과 폭동의 진원지 파리를 분리정책(Ségrégation)을 통해 공간적으로 제압하려는 의도였다. 그로 말미암아 권력과 저항권력의 상징이었던 파리는 점차 그 중심성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부르주아계급은 이 분리정책에 힘입어 자신들만의 ‘고도 안전지대’ 혹은 고급주택가를 구축하였다. 오늘날의 예를 든다면, 숲과 높은 철망으로 둘러 쌓인 자신들의 저택을 지키는 데 여념이 없는 ‘침입의 두려움에 떠는 환경운동가’들(Jean-Pierre Garnier, 1996: 229-238)이 여기에 해당될지도 모른다.

르페브르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경제적 이익집단과 정치권력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결합을 통한 지배공간의 유지가 도시계획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이다. 가령 도시계획을 놓고 정치권력은 정치자금을 충원하는 가장 중요한 소득원을 발견하고, 자본은 축적체제의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발견하고, 지식인들은 이를 정당화함으로써 권력의 구조 속에 편입될 기회를 발견한다. 따라서 도시계획이란 단순한 부정부패의 온상일 뿐 아니라 현대자본주의사회의 기본적인 모순들이 응집되어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현실적으로 도시계획은 공간을 차등화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예를 들면 도로건설을 통해 문화적으로 동질적인 지역을 분리시키고, 고급주택지를 도로로 둘러싸아 외부지역으로부터 보호하고, 판자촌을 강압적으로 허무는 정책에 도시계획은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 결과, “폭력이 합리성을 가장하고, 다시 통합적 합리성이 폭력을 합리화해주는 공간” 속에서 역사성과 연대성은 파편화되었다(H. Lefebvre, 1974: 325). 아마도 최근 한국사회에서 난개발을 뒷받침했던 도시계획이야말로 그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소비조작의 관료사회를 떠받치는 물리적 폭력과 시각화된 이데올로기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H. Lefebvre, 1968a). 이 지배공간의 이데올로기 전략은 오늘날 탈육체화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현대자본주의사회는 육체를 죽음으로 몰고 간다. 첫째, 폭력을 이용해 '구체적으로', 둘째, 살아있는 것의 파편화를 통해 '상징적으로' 육체의 죽음을 선포한다(H. Lefebvre, 1974: 357). 이것이 르페브르의 공간이론에 대한 포스트모던한 해석을 고집하는 이들이 선호하는 탈육체화(Décorporalisation)이론이다.⁷⁾ 이들이 강조하는 탈육체화의 뿌리는 이데올로기에 있고, 이는 다시 시선(Regard)을 통한 길과 담론(Discours)을 통한 길로 나누어 설명될 수 있다. 이 중 전자는 드보(Guy Debord)가 '스펙타클의 사회'에서 천착했던 측면이고, 후자는 맥루한(McLuhan)이 주로 천착했던 측면이다. 그러나 르페브르에게 있어서 탈육체화를 조장하는 것은 크게 보자면 정치권력/경제적인 것/이데올로기 등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이 세 요소는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먼저 정치권력과 시장은 공모를 통해 공간을 상품화시키고, 교환가치에 지배되는 공간은 구체적 사물을 상실한다. 그 때부터 '시선'은 공간의 전면에 등장하고, 이듬하여 "거울놀이가 일반화된다"(H. Lefebvre, 1974: 330). 예를 들면, 여자의 육체는 정치적으로는 가부장적 질서에 의해 금욕을 강요당하고, 경제적으로는 모든 사람의 욕망의 대상으로 상품화된다.

이러한 탈육체화를 조장하는 시각화(Visualisation) 논리는 노엘(B. Noel)의 에세이 『정신적 거세(Castration mentale)』에서 한층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인다(Bernard Noel, 1997). 그에 따르면 언제부터인가 사회적 지배의 전략을 비싼 비용이 드는 폭력적이고 제도적인 장치보다는 개인들을 정신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두뇌세탁 전략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시각화 논리는 소비사회의 여가문화와 맞물려 대중매체의 작동논리 중 하나로

7) Lynn Stewart(1995), "Bodies, vision and spatial politics: A review essay on H. Lefebvre's *The Production of Space*," *Society and Space*, vol. 13. p. 610; Derek Gregory, *Geographical Imagination*, London: Blackwell, 1994 참조.

자리잡게 되었다. 노엘의 주장에 따르면 시각화 논리를 이용한 지배전략은 인간의 생명을 살해하는 잔인하고 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경제적이고 인간적(?)인 것이다.

6. 저항공간의 내적 역동성

공간의 불균등발전은 국가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국 내에도 존재할 수 있다. 이것이 앞서 말했던 내부식민지의 존재이다. 불균등발전은 특히 지역간, 도시간, 도시-농촌 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역사적으로 지배계급은 도시에서 노동자계급의 사회적 연대를 파괴함으로써 그것이 가진 자본축적체제에 대한 정치적 조절기능(혹은 통제기능)을 본원적으로 마비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공간을 통해서 노동계급을 분리시키고, 새로운 도심 속에 결정의 중심성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렇다면 지배공간은 너무도 공고하여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것인가. 혹은 공간정치란 애당초 불가능한 것이었는가. 그러나 이렇게 형성된 자본주의사회의 공간은 지배공간이자 저항공간으로서의 이중적 의미와 가능성을 갖는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과 기술 그리고 권력은 공간을 완벽히 통제하지 못한다. 공간을 둘러싸고 기술발달과 소유관계간의 갈등이나, 사적 소유와 집단적 사용 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구체적인 예라고 말할 수 있다. 더욱이 파편화된 공간 속으로 추방되었던 다양한 집단과 사회세력은 그 저항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다. 앞서 기술하였던 사회적 공간의 세 계기는 사회세력들이 지배계급의 공간전략 앞에서 완전히 무장해제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먼저 사회집단이 특정 공간 속에서 공유하는 연대와 삶의 방식들은 이 데올로기적 장치에 의해 완전히 파괴될 수 없는 것이다. 이데올로기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러나 제한된 효능을 갖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의

식 혹은 표상 속에만 모순을 은폐할 뿐이지, 결코 생산관계상의 모순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H. Lefebvre, 1973b: 94). 따라서 “이데올로기는 공간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H. Lefebvre, 1974: 242). 분명 연대와 삶의 방식은 이데올로기에 의해서보다는 일상적 삶을 통해 스며드는 공간의 사회적/경제적 재구성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다 해도 이들이 가진 연대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르페브르가 인간의 사회적 관계 속에 내재된 연대의 ‘단순회복’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차라리 그는 연대와 생활방식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즉 연대를 가정하고, 그것을 출발점으로 삼기보다는 연대를 새롭게 재구성하려는 것이다.

공간을 통해 파고드는 지배관계는 ‘공간적 실천’에서부터 ‘표상공간’을 거쳐 ‘공간의 표상’에 이르기까지 구체적 모순을 드러낸다. 더 이상 일상 생활에서 인간의 욕구는 충족되지 않으며, 이것을 억누르는 이데올로기적 장치들은 식민상태를 은폐할 수 없다. 그렇다고 자본주의의 축적체제의 위기가 기계적으로 저항공간을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각 주체는 “그 공간에 다다르기 위해 사회공간 내에서 자신에게 할당된 공간을 배당 받는 시험을 치러야 한다”(H. Lefebvre, 1974: 44). 예를 들면 오스만의 계급전략으로 인해 파리의 북쪽으로 밀려났던 노동계급은 파리썬문과 더불어 자신들의 공간의 정치적 주체로서 돌아왔다. 이들은 공간의 중심을 재장악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재장악하려 했던 것이다(H. Lefebvre, 1965b: 133). 르페브르는 이 표현을 68년 운동의 와중에 종종 인용하곤 하였다. 소비조작의 관료사회가 도시계획의 합리성을 표방하며 강제적으로 축출했던 도시빈민들과 소외된 이들이 68운동을 통해 도시를 재점령하기 위해 돌아왔다는 것이다(H. Lefebvre, 1973b: 230; 1968b: 128-130).

노동계급의 중심성이 약해지고 도시주변부에서 다양한 세력들이 솟아 오르는 바로 그 시점에 르페브르는 시민사회의 주도로 이 사회운동(도시 빈민운동, 소수인종운동, 페미니즘운동, 학생운동, 동성연애자운동 등)을 노동운동과 관련해서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이 시도는 다양한 세력들이 자본주의사회의 공간적 모순을 체험하고 있으므로, 그 모순이 응축된 이

들을 통해 정치적 효과를 증폭해낼 수 있으리라는 믿음에 기인한 것이었다. 이러한 믿음은 그로 하여금 68운동 당시 학생운동을 단순한 ‘불씨’로 치부하여, 그 가능성을 부인하던 이들과 대립하게 한다. 그에 따르면 학생운동은 대학의 위기뿐만 아니라 고도로 조직화된 자본주의사회의 모순을 나타낸다. 따라서 68운동은 상부구조의 위기에서 비롯되었지만 사회를 뒤 흔들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H. Lefebvre, 1968c: 11-12, 29). 이러한 방식으로 르페브르는 새로운 사회운동에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정치적 프로젝트를 부여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전세계적으로 1960년대를 휩쓸었던 혁명적 낭만주의(쿠바의 체 게바라[Che Guevara], 중국문화혁명에서의 모택동 등이 상징했던)에 대한 호소에 머물지 않아야 했다. 실제 1960~70년대 유럽의 사회운동은 엘리트주의적 정치적 낭만주의에 경도되어 있었고, 그들의 빠른 변신은 ‘신철학자’의 출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르페브르는 주의주의적 엘리트주의에서 반정치적 회의주의로의 변화를 조장했던 이 낭만주의적 경향성을 넘어서는 결단을 내린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변혁을 포기하는 신철학자들에 대해 맑스의 사상을 호출하기에 이른다.

저항세력의 근간을 이루었던 노동계급은 분화(혹은 분열)되었고, 운동의 다양화로 인해 계급투쟁은 반복적 균형의 운동 속으로 침식되어갔으며, 그 결과, 갈등은 반목으로까지 발전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중심성의 붕괴 혹은 다원화 현상을 인정하고, 이를 새롭게 결집시킬 수 있는 정치적 프로젝트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요구되지 않는가(H. Lefebvre, 1988: 62-66).

7. 글을 맺으며

1980년대 초 르페브르는 다양한 지역적 사회운동들이 국가에 의한 공간의 배타적 통제를 지방자치제로 발전시키고, 최종적으로는 지역단위의

민주주의를 강화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H. Lefebvre, 1981: 99). 그러나 도시에서 집단적 연대의 강화와 그 정치화를 통한 지역민주주의의 강화라는 그의 이상은 역설적으로 지방자치제의 실현과 더불어 좌절하였다. 중앙권력으로부터 벗어난 지방권력은 도시개발정책을 매개로 대기업 혹은 다국적기업과 담합하여 부정부패를 가속화시켰고, 그 결과 자본의 논리는 보다 손쉽게 지방도시에 파고들 수 있었다. 그리고 지방민주정치의 지주라고 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정치적 의지나 연대(혹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공적영역)는 실업의 위협 앞에서 손쉽게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자유주의의 경쟁이데올로기는 개인들간의 경쟁을 창조적 역동성과 결부시켜 모든 형태의 집단적 연대를 전근대적인 것으로 매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제는 자본이 국경을 손쉽게 넘나들기 위해 이용했던 국가약체화 전략의 일환이었고, 바꾸어 말하면 자본의 탈구역화 경향의 부수적 결과였는지 모른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좀더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면, 지방자치제란 지역단위로 다양한 사회세력들이 끊임없이 중앙권력의 해체를 요구해왔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현재 한국에서 지방자치제의 향방은 시민사회의 취약성이나 국가권력의 파행성과 맞물려 있어, 자본의 손쉬운 침투와 지방행정부의 부패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제가 30여 년의 단절 후 도래한 것은 이른바 세계화시대에 지방공간을 장악하기 위한 공간적·계급적 전략의 일환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지역민주주의에 확고히 토대를 둔 공간정치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가권력의 사회적/공간적 중심성의 이완을 초래하며 새로운 중심성의 '구성'을 가능케 할 수도 있다. 바로 이 점이 르페브르의 공간생산이론이 갖는 긍정적 의미일 것이다. 이 공간정치적 가능성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자본의 논리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변혁의 정치적 이념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세력들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대안적 공간정치의 현실화는 우연한 사건에 의해 돌발적으로 가시화될 가능성 또한 배제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일회성 폭발이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는 사회적 공간의 각 수준에 스며든 모순들이 자본주의의 공간전략과 갖는 관계를 인식하고, ‘공간에 대한 지각’/‘공간에 대한 인식’/‘공간에 대한 체험’에 고유한 실천/이성/자발성을 민주적 정치이념에 따라 유기적으로 조직하는 것이다. 즉 물리적 공간인 도시와 농촌 속에 관철된 자본의 논리, 사회적 공간인 일상생활을 식민화시키는 소비사회의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함의, 이를 합리화하는 정치적, 경제적 이데올로기를 비판적으로 지양하는 것이 공간정치의 출발점이 된다. 그리고 오늘날 공간정치는 이러한 비판을 공론화시킬 수 있는 공적 공간을 구성해야 할 과제와, 이러한 요구를 정치적으로 관철시킬 다양한 사회세력의 실천적 연대를 위한 정치적 프로젝트를 정립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조명래. 1997, 『도시농촌통합의 정치경제학적 독해』, 《공간과사회》 8호.
- 최병두. 1991, 『한국의 공간과 환경』, 한길사.
- 최장집·임현진 편. 1993, 『시민사회의 도전: 한국민주화와 국가·자본·노동』, 사회비평사.
- Boubier, Alban. 1994, “Vilfredo Pareto,” *Histoire de la pensée sociologique*, Gilles Ferréol(éd.), Paris, Armand Colin.
- Castells, Manuel. 1982, *La Question Urbaine*, Paris, Maspéro.
- Debord, Guy. 1967, *La Société du Spectacle*, Paris, Gallimard.
- Deleuze, Gilles et Guattari, Felix. 1991, *Qu'est-ce que la Philosophie*, Paris, Ed. de Minuit.
- Foucault, Michel. 1976, *Histoire de la sexualité, vol. I: La Volonté de savoir*, Paris, Gallimard.
- Garnier, Jean-Pierre. 1994, “La Vision urbaine d'Henri Lefebvre,” *Espaces et Sociétés*, n.76.
- _____. 1996, *Des barbares dans la Cité*, Paris, Flammarion.
- Harvey, David. 1982, *The Limits to Capital*(최병두 역, 『자본의 한계』, 한

- 을, 1995).
- _____. 1990,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London, Blackwell.
- _____. 1996, "La Globalisation en question," *Actuel Marx: Congrès Marx International*, Paris, P.U.F.
- Hess, Rémi. 1987, *Henri Lefebvre ou l'aventure du siècle*, Paris, Métailié.
- Lefebvre, Henri. 1961, *Critique de la vie quotidienne*, vol. II., Paris, L'Arche.
- _____. 1965a, *La Métaphilosophie*, Paris: Ed. de Minuit.
- _____. 1965b, *La Proclamation de la Commune*, Paris, Gallimard.
- _____. 1967, "Propositions pour un nouvel urbanisme," *Architecture d'aujourd'hui*, juin-juillet.
- _____. 1968a, *La Quotidienneté dans le monde moderne*, Paris, Gallimard.
- _____. 1968b, *L'Irruption de Nanterre au sommet*, Paris, Anthropos.
- Lefebvre, Henri et Goldman, Lucien et al. 1968c, "Table Ronde: Pourquoi les étudiants," *L'Homme et la Société*, 1968, avril-juin, n.8.
- Lefebvre, Henri. 1971, *Au-delà du Structuralisme*, Paris, Anthropos.
- _____. 1972a, *La Pensée Marxiste et la Ville*, Paris, Casterman.
- _____. 1972b, "Marx," *Histoire de la Philosophie*, Paris, Pléiade.
- _____. 1973a, *Espace et Politique*, Paris, Anthropos.
- _____. 1973b, *La Survie du Capitalisme: La reproduction des rapports de production*, Paris, Anthropos.
- _____. 1974, *La Production de l'Espace*, Paris, Anthropos.
- _____. 1977, *De l'Etat, tome III*, Paris, U.G.E.
- _____. 1980, *La Présence et l'Absence*, Paris, Casterman.
- _____. 1981, *Critique de la vie quotidienne*, vol. III., Paris, L'Arche.
- _____. 1988, "Une Nouvelle Positivité de l'Urbain," *Revue M*, n.17.
- Lipietz, Alain. 1977, *Le Capital et son espace*, Paris, Maspero.
- Merrifield, Andrew. 1993, "Place and Space: A Lefebvrian Reconciliation," (권정화·심승희 역, 『장소와 공간: 르페브르적 화해』, 《공간환경》 1994년 겨울호).
- Noel, Bernard. 1997, *La Castration mentale*, Paris, P.O.L.
- Rancière, Jacques. 1995, *La Méésentente: Politique et Philosophie*, Paris, Galilée.
- Stewart, Lynn. 1995, "Bodies, vision and spatial politics: A review essay on H. Lefebvre's *The Production of Space*," *Society and Space*, vol.

13.

Verdès-Leroux, Jeannine. 1983, *Le Réveil des somnambules*, Paris, Fayard/
Minuit.

_____. 1987, *Au Service du Parti*, Paris, Fayard/Minuit.

